

DPI, 중국 선양고궁 새단장 수주

중국 최대 최고의 고궁 2개가 모두 국산 페인트로 새단장한다.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DPI(회장 한영재)는 최근 중국의 선양 고궁박물관과 선양 고궁 전체를 도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PI는 스웨덴과 영국, 중국 등의 도료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DPI는 1995년에도 중국 역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베이징 자금성 전체를 도장한 바 있는데, 베이징 자금성에 이어 선양 고궁에 대한 도장을 맡아 국산 페인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선양 고궁은 총면적이 6만㎡로 90개 건물에 3000여 칸에 이르는 웅장하고 화려한 고궁으로 베이징 자금성에 이어 2번째 규모이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고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양 고궁을 칠하게 될 페인트는 “노루표 내추럴 크린솔”로 인체에 무해한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고내구성의 수성페인트이다.

DPI는 전체 도장면적 4만㎡ 중 5000㎡를 5월 도장하고 2002년 안에 전체 도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02 >